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

박 민 혜¹⁾

가톨릭대학교 아동상담학과

정 윤 경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이에 따른 양육 행동이 자녀의 목표지향성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5, 6 학년과 그 부모 총 1024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 목표지향성 척도(Ames & Archer, 1988)를 부모에게는 양육행동 척도(오성심, 이종승, 1982)를 사용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습목표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목표가 높았으며 부모의 수행목표가 높을수록 자녀의 수행목표와 학습 목표가 모두 높았다. 둘째, 부모의 학습목표가 높은 경우 자율적 양육행동과 성취적 양육행동을 보였고 부모의 수행목표가 높은 경우 통제적, 비성취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 경우 자녀의 수행목표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성취적인 경우도 자녀의 수행목표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습목표는 성취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습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적응적인 목표지향성을 위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 자신의 바람직한 신념과 태도로 비롯됨을 제안한 것이다.

주요어 : 부모의 목표지향성, 양육행동, 자녀의 목표지향성, 수행목표, 학습목표

* 이 논문은 2012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상담학과

2)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benijeong@catholic.ac.kr)

I. 서론

실패에도 무기력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의 행동에는 높은 성취동기가 작용한다. 이러한 성취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과 이론이 제안되어 왔으나 아동의 동기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으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은 목표지향성(goal-orientation)이다(Ames, 1992).

목표지향성이론은 성취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사고방식으로 학습목표와 수행목표를 제시하는데 이 둘은 성공에 대한 생각이나 성취활동에의 참여 이유, 자신의 과제와 과제성공에 대한 생각에서 대조를 이룬다(부지영, 2007). 학습목표를 가진 아동은 배우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는 것에 흥분한다. 또한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신이 난다(Dweck, 1990). 실패나 좌절상황에서도 그것이 자신의 유능감을 판단하는 것이라고는 느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다. 반면, 높은 수행목표를 가진 아동은 그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자신을 측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똑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Dweck & Leggett, 1988). 그렇기 때문에 실패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어 과제를 다시 해결할 용기를 내지 못해 실제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시킬 기회를 잃고 만다.

그런데 학습목표와 수행목표는 1차원 상 양극단을 특징짓는 특질이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각각 개인을 특징짓는 변인들로 간주된다(이종욱, 박병기, 2007; Barron & Harakiewicz, 2001;

Potter, McCormick, & Busching, 1994). 이는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단일차원의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 선상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수행 목표와 학습 목표 차원 모두에서 개인의 위치를 가질 수 있으며 두 목표의 양상이 개인의 적응과 성취를 이해하는데 더 유익할 것이다.

가령, 학습 목표는 거의 지향하지 않으면서 너무 높은 수행 목표를 지닐 때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Dweck & Licht, 1984),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더 이상 새로운 과정이나 과제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며 작은 위험부담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과제를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안전하고 쉬운 선택만을 한다(Dweck & Licht 1984). 도전은 학교와 직업 생활의 일부이고, 인간관계의 일부이며 매일 매일 일상생활을 해내는 데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겪어나가는데도 모두 존재한다. 만일 자녀가 도전을 싫어한다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Dweck & Elliot, 1983). 그러므로 수행목표보다 높은 학습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적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급 구조나 교사의 태도(Friedel, Cortina, Turner, C. & Midgley, 2007; Retelsdorf, Butler, Streblow, & Schiefele, 2010), 과

제나 피드백의 성격(Bumenfeld, 1992; Elliot & Dweck, 1988; Fincham & Cain, 1986; Hokoda & Fincham, 1995; Wentzel, 1998), 사회경제 및 문화적 배경 (Kimmel, & Volet, 2010) 등이 연구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성취욕구와 자아효능감 및 지능 실체감, 개인의 지능개념과 귀인성향, 교수방법 및 경쟁을 조장하는 학급구조, 교사의 태도, 아동의 능력에 대한 신념, 사전경험이 연구되어왔다(김수연, 2009; 임주미, 2011; 최금희, 2010; 최우기, 2007). 그런데 무엇보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부모의 특징과 자녀의 목표지향성간의 관련성을 직접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이며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8학년 부터 12학년까지 5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중요한 타인을 조사한 Brookover, Erikson과 Joiner(1975)의 연구에서 학년 수준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90%이상의 학생들이 부모를 가장 중요한 타인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615명의 초등학교 3년에 걸쳐 연구한 Wigfield 등(199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한편, 부모와 교사의 평가와 상관성이 높아지며 더욱 안정되어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교사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배움과 성취가 활발히 일어나는 초등학교 시기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신념이 자녀의 목표지향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목표지향성 발달과 관련을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성취-비성취, 자율-통제 요인이 자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과제에 임하느냐에 관련을 맺는데, 가령, 부지영(2007)은 어머니의 성취 요인과 아버지의 친애요인이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가 성취지향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기 책임성과 적절한 모험성,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도 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종덕(2001)은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실패회피 동기를 낮추고 지적 동기를 높인다고 하였다. 박강학(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 이해, 존중,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자율, 자발적 참여, 책임 등의 자율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영도(2005)의 연구에서도 수용,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면 자녀는 능력에 대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평가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엄격하고 제한적인 양육행동을 가질 경우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두고 평가하기 보다는 타인의 기준을 내사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이승현, 2009).

한편 최근 연구자들은 부모의 직접적 양육 행동뿐 아니라 부모의 행동에 기저하는 인지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있다(Dunsmore & Karn, 2001; Gottman, Katz, & Hooven, 1996; Rubin & Chung, 2006). 이들은

부모의 신념이나 태도가 양육 행동에 깊이 관여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나 동기 등의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자녀의 목표지향성과 가장 큰 관련을 맺을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요인은 아마도 부모 자신의 목표 성향일 것이다. 실제로 부모가 능력보다는 노력에 가치를 두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도 당장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다(Dweck & Licht, 1984). 이는 노력을 중시하는 부모는 지능이나 현재의 결과보다는 노력에 의해 향상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동에게 훈육하고 양육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노력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신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Dweck, 1990). 즉, 노력을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변화시키고 과제에 대한 성과를 지금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눈앞에 놓인 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반면, 능력을 중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과에 대한 당장의 결과를 중요시 한다. 그렇게 되면 자녀 또한 당장의 결과를 매우 중요시 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과제나 익숙한 과제만 하게 되는 것이다(김지경, 2008). 학생의 수행회피 목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 부지영(2007)의 연구와 부모가 노력과 발전 대신에 수행과 능력에 보상을 하면 자녀는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게 된다는 Dweck (1990)의 연구는 부모의 가치나 신념이 내재된 부모의 목표지향성이 자녀의 목표지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실

패를 능력에 귀인 하는 부모의 자녀에게서 실패 이후 수행이 악화되는 무기력한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Fincham과 Cain(1986)의 연구는 부모가 수행목표를 추구할 경우 자녀 또한 수행목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본다면 부모의 내적 신념인 목표지향성과 외적 태도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목표지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이들의 관련성은 부모 자신의 목표 지향성이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을 통해 자녀의 목표 지향성으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기대되어 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았다.

김종덕(2001), 박수진(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요인이 자녀의 목표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되었지만 부모와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목표 지향성과 양육 행동을 함께 연구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부모와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목표지향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둘째, 이러한 관련성은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관련성,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관련성 그리고 매개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12명과 그들의 부모들로서 총 1024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Harter(1981)에 의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이후부터 동기적 특성에 있어서의 개인차이의 믿을 만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둘째, 약 10세경부터 아동은 목표지향성 연구에서 나오는 많은 중요한 개념들 과제난이도와 운, 노력, 능력, 기술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Thorkildsen, & Nicholls, 1988).

2. 측정도구

부모와 자녀의 목표지향성 척도

Ames와 Archer(1988)이 개발한 목표지향성 척도를 유미영(1997)이 번안하여 남지연(2006)이 사용한 검사지를 윤나리(2007)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습목표와 수행목표 하위 요인별로 8문항씩 총 16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6점의 Likert식 척도이며,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FI=.91$, $RMSEA=.070$). 부모의 목표지향성 척도는 자녀의 목표지향성 척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되, 부모의 옛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 척도 모두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양육행동척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양육태도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특징은 Schaefer(1959)가 제시한 2개의 양육차원 외에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2개 차원을 추가하여,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를 포함하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891$, $RMSEA=.073$). 각 문항은 하위요인 별로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이며 각 차원별 Cronbach's α 값은 애정-적대는 .81, 자율-통제는 .64, 성취-비성취는 .62, 합리-비합리는 .71이며, 전체는 .88이다.

3. 연구절차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설문을 배부 하고 회수 하였다. Y초등학교 6학년 1개반, 5학년 7개반, J 초등학교 6학년 4개반, G초등학교 6학년 4개 반 5학년 4개반, N초등학교 6학년 4개 반의 자녀와 학부모에게 본 연구의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설문은 자녀와 부모의 설문지에 같은 번호를 쓴 뒤 따로 배부하였다. 자녀에게는 학교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설문지를 집으로 보내어 각각 다른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수를 할 때는 번호를 보고 자녀와 부모의 설문을 짝지어 수집하였다. 총 134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1128부 중 중복응답을 한 경우와 응답이 누락된 경우, 자녀와 부모의 두 설문지 중 하나만 수거된 경우가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총 1024명의 자료를 결과분석에 포함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부모의 목표지향성, 자녀의 목표지향성,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각 문항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둘째, 부모의 목표지향성, 자녀의 목표지향성,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집단을 4집단으로 나눠 다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녀의 목표지향성 변인과 부모의 목표지향성, 부모 양육행동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양

육행동 변인이 두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경로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LISREL 8.51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 자녀의 목표지향성 간의 관계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 자녀의 목표지향성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학습목표는 자녀의 학습목표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r=.09$, $p<.05$) 수행목표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부모의 수행목표는 자녀의 학습목표($r=.13$, $p<.01$)와 수행목표($r=.16$, $p<.01$)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목표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부모의 양육

표 1. 부모, 자녀 목표유형, 부모양육행동 변인 간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1. 자녀학습목표	1							
2. 자녀수행목표	.30**	1						
3. 부모학습목표	.09*	-.00	1					
4. 부모수행목표	.13**	.16**	.35**	1				
5. 부모애정	.10*	.01	.26**	.03	1			
6. 부모자율	.01	-.13**	.16**	-.10*	.49**	1		
7. 부모성취	.13**	.04	.26**	.15**	.64**	.43**	1	
8. 부모합리	.08	-.05	.18**	-.01	.73**	.52**	.57**	1

* $p<.05$, ** $p<.01$

행동 변인은 애정($r=.26, p<.01$), 자율($r=.16, p<.01$), 성취($r=.26, p<.01$), 합리($r=.18, p<.01$) 모두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수행목표는 부모 양육 행동 변인 중 자율 변인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0, p<.05$), 성취 변인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5, p<.01$). 자녀의 학습목표는 부모의 양육 행동 변인 중 애정($r=.10, p<.05$)과 성취 변인($r=.13,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율과 합리 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 중 자율과 자녀의 수행목표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3, p<.01$) 애정, 성취, 합리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와의 관련성을 각각 살펴보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서론에서도 논의 되었지만 부모의 목표 지향성은 한 차원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목표와 수행 목표의 두 차원에서 각각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표 1 참조), 수행, 학습의 두 목표가 모두 높거나 낮은 참여자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을 수행 목표, 학습 목표로 구분하기 보다는 이 두 목표 차원의 고저 수준에 근거하여 부모의 목표 지향성의 양상을 구분하고 자녀 양육 행동과 자녀 목표지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 학습목표와 부모 수행목표의 상위 30%를 기준으로 높고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다음의 4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학습목표($M=4.75, SD=.25$)와 수행목표($M=4.9, SD=.23$)가 모두 높은 부모집단(181명), 학습목표($M=4.57, SD=.35$)는 높고 수행목표($M=3.91, SD=.32$)가 낮은 부모집단(98명), 수행목표($M=4.82, SD=.30$)는 높고 학습목표($M=3.51, SD=.32$)가 낮은 부모집단(104명), 학습목표($M=3.37, SD=.30$)와 수행목표($M=3.75, SD=.27$)가 모두 낮은 부모집단(129명)으로 구분하여 부모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부모목표지향성에 따른 자녀 목표지향성

표 2는 부모의 목표지향성에 따른 자녀 목표지향성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변량분석 결과 부모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자녀 목표지향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부모목표지향성에 따른 자녀목표지향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사후검증

자녀	부모	학습↑수행↑ ($n=181$)	학습↑수행↓ ($n=98$)	학습↓수행↑ ($n=104$)	학습↓수행↓ ($n=129$)	사후검증 (Scheffe)
		I	II	III	IV	
학습목표		34.60 (7.25)	34.33 (4.70)	32.40 (6.98)	31.43 (7.16)	I = II > III = IV
수행목표		35.30 (6.97)	32.67 (6.09)	36.11 (5.37)	33.51 (6.04)	I = III > II = IV

부모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자녀의 학습목표에 차이가 있었다($F(3, 216) = 3.34, MS_e = 47.02, p < .05$). 부모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자녀의 수행 목표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 216) = 2.55, MS_e = 40.05, p < .05$). 또한 Scheffe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자녀의 학습목표는 부모의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높은 집단과 학습목표는 높고 수행목표는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가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 < .05$). 자녀의 수행목표는 부모의 학습목표가 낮고 수행목표가 높은 집단이 부모의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부모목표지향성에 따른 양육행동

표 3은 부모의 목표지향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다변량분석 결과 부모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자녀목표성향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애정($F(3, 215) = 4.90, MS_e = 39.27, p < .05$), 자율 ($F(3, 215) = 3.16, MS_e = 34.31, p < .05$), 성취 ($F(3, 215) = 7.85, MS_e = 27.90, p < .001$)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Scheffe 방식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높은 집단과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이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이 학습목표가 낮고 수행목표가 높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성취가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높은 집단과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이 학습목표와 수행목표 모두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표 3. 부모목표지향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사후검증

부모 자녀	학습↑수행↑ (<i>n</i> =180)	학습↑수행↓ (<i>n</i> =97)	학습↓수행↑ (<i>n</i> =101)	학습↓수행↓ (<i>n</i> =129)	사후검증 (Scheffe)
	I	II	III	IV	
애정	59.35 (5.70)	60.36 (6.96)	57.40 (6.84)	56.27 (6.28)	I = II > III > IV
자율	50.19 (6.31)	52.51 (5.80)	48.56 (5.51)	49.44 (5.44)	I = II > III = IV
성취	57.18 (5.40)	56.79 (5.18)	56.15 (5.64)	53.38 (4.86)	I > II > III > IV
합리	55.10 (5.61)	57.39 (6.54)	55.15 (6.21)	54.05 (5.68)	-

.05).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합리가 높은 집단은 전체적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사후검증에서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부모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

4가지 양육행동변인 또한 상위 30%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자녀의 목표성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자녀목표성향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에 따라 자녀의 수행목표($F(1, 369) = 8.18, MS_e = 46.73, p < .01$)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성취적 양육행동에 따라 자녀의 수행목표($F(1, 323) = 7.26, MS_e = 39.91, p < .0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자율이 낮은 즉, 통제적 집단에서 자녀의 수행목표가 유의미하게 높으며

표 4.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

부모 양육집단		자녀 학습목표		자녀 수행목표	
		<i>M</i>	<i>SD</i>	<i>M</i>	<i>SD</i>
애정	고	33.86	6.53	34.40	5.97
	저	32.43	6.98	34.48	6.42
자율	고	33.32	6.71	33.35	6.51
	저	33.31	7.25	35.25	6.09
성취	고	33.94	6.51	34.55	6.32
	저	31.91	7.18	34.05	6.25
합리	고	33.58	6.42	34.25	6.18
	저	32.33	6.53	35.00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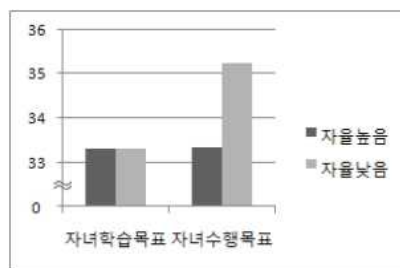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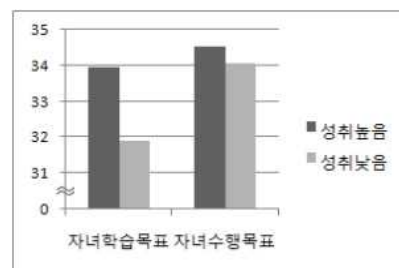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성취적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 차이

그림 2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 중 성취가 높은 집단에서도 수행목표가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과 합리차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2.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후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자녀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취와 통제변인이었다. 따라서 성취와 자율변인을 대상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수행목표는 자녀수행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성취적 양육행동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적 양육행동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한 Sobel 검증결과 그림 3과 표 5와 같이 성취적 양육행동 변인은 매개변인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2.42, p<.05$). 반면 그림 4, 표 6과 같이 부모수행목표와 자율이 낮은 통제적 양육 행동과 자녀의 수행목표 변인 간의 경로분석결과는 부모수행목표가 자녀수행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행동도 자녀수행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통제적 양육행동 변인이 부모수행목표와 자녀수행목표 변인 간의 매개변인으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Z=1.59,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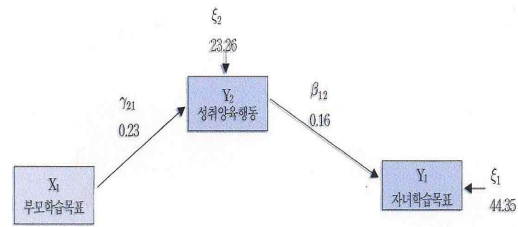


그림 3. 부모학습목표, 성취적 양육행동, 자녀학습목표 경로모형

표 5. 부모학습목표, 성취적 양육행동, 자녀학습목표 경로계수 값

계수	계수값	표준오차	t
γ_{21}	0.23	0.04	6.17**
β_{12}	0.16	0.06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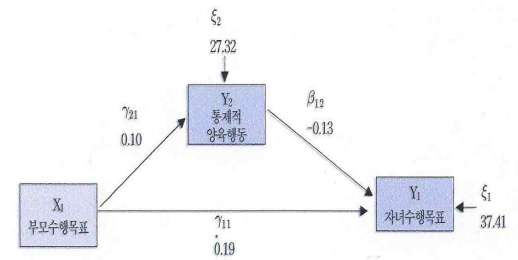


그림 4. 부모수행목표, 자율적 양육행동, 자녀 수행목표 경로모형

표 6. 부모수행목표, 통제적 양육행동, 자녀 수행목표 경로 계수 값

계수	계수값	표준오차	t
γ_{11}	0.19	0.05	3.46**
γ_{21}	0.10	0.05	2.26**
β_{12}	0.13	0.05	2.5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바람직한 목표지향성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목표지향성, 양육행동과 자녀의 목표지향성간의 관련성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선 부모의 학습목표는 자녀의 학습목표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가 과제 수행 상황에서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평가에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자녀 또한 과제 수행 시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기 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자신의 유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목표지향성을 본 연구와 같이 학습과 수행의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연구하진 않았지만 박수진(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숙달집단 목표지향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수행목표는 자녀의 학습목표와 수행목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의 수행회피 지향은 자녀의 수행회피 지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발견된 박수진(2009)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부모의 수행목표가 자녀의 학습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

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개인의 특성이 학습목표와 수행목표의 다차원적 양상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이종옥, 박병기, 2007), 단순히 부모의 학습 목표 수행 목표와 자녀의 목표지향간의 관련성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와 수행목표 두 차원에서의 부모의 수준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자녀의 목표지향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학습 목표는 부모의 학습 목표가 높은 경우, 수행 목표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가장 높았다. 즉, 부모의 수행 목표가 높더라도 학습 목표도 높은 경우 자녀는 높은 학습목표를 갖는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수행목표가 언제나 역기능적이라는 극단적 견해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연구 중에는 과제 수행의 절차가 분명히 명시되었고 이미 학습이 완료된 경우 수행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Seijts & Latham, 2012). 본 연구에의 상관 분석에서도 부모의 수행 목표는 성취적 양육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 목표를 가진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북돋고 이를 지원하는 양육을 하는데서 비롯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수행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높은 성취적 태도가 이를 보완한 경우 자녀가 적응적인 성취 목표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즉, 자녀를 강하게 통제하려하는 수행목표 지향적 부모의 양육 취약성을 높은 학습 목표에 근거한 양육 행동이 보완 한 경우 자녀가 적응적인 목표지향성을 갖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가 높은 어머니들은 성취와 합리적 태도뿐 아니라 애정의 수준도 높은 양육 행동을 나타냈다. 이는 최병연(2001)의 연구에서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학습자들과 유사하게 과제를 가치 있게 지각하고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인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높은 집단의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시험불안 점수가,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의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난 Pintrich (2000)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낮은 부모의 자녀가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 목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목표 성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 자녀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이 낮아 자녀의 학업이나 성취에 적절한 관여를 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두 차원의 목표 수준이 모두 낮은 부모의 경우 애정과 성취 영역에서의 양육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의 목표 지향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자녀의 수행목표는 부모 수행 목표가 높고 학습 목표가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모의 수행목표가 낮고 학습 목표가 높은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목표는 학생의 수행회피 목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 부지영(2007)의 연구와 관련이 있으며 부모가 노력과 발전 대신에 수행과 능력에 보상을 하면 자녀는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한

다는 Dweck(1990)과 자녀의 실패를 능력에 귀인 하는 부모의 자녀에게서 실패 이후 수행이 악화되는 무기력한 행동이 나타남을 보고한 Fincham & Cain(1986)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해준다.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

부모의 학습목표는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 태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숙달접근 목표와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정적상관을 밝힌 정정애(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학습목표를 가질 경우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상담이나,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목표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 자율적 태도와 끈기 있게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도록 권하는 성취적 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부모의 수행목표는 자율적 양육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성취 변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평가와 높은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두며 자녀에게 권위를 강조하고 자녀를 통제하려는 양육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성취적 양육행동이 수행목표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것은 다소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수행 목표가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활동하기를 권장하는 성취적 양육 태도

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다소 과제나 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서서 논의 한 바대로 부모의 수행 목표 성향은 자녀의 성취를 뒷받침하는 적극 적인 양육 행동으로 이끌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높은 집단과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낮은 집단의 부모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애정을 나타냈다. 이는 학습목표와 수행목표 모두를 강하게 갖는 부모들이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돌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대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이 학습목표가 낮고 수행목표가 높은 집단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다. 이는 학습목표를 가진 부모는 자율적 양육행동이 높고 수행목표를 가진 부모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하위요인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을 과정, 자율, 성취압력으로 나눈 최금희(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정지향적인 태도와 자율지향적인 태도가 정적 상관을 보여 과정 지향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일수록 자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데, 과정 지향적 양육태도는 과제 수행 시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이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학습목표를 가지는 부모일수록 자녀를 자율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성취가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습목표와 수행목표가 모두 높은 집단과 학습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이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목표지향성이 낮을수록 비 성취적 양육행동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위의 결과들은 목표 지향성과 같은 부모의 내적 신념이나 사고방식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목표지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목표지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과 성취는 자녀의 학습목표와 높은 관련이 있었으며, 부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수행목표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지며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성취적 태도를 보이면 자녀가 학습목표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반면, 설명이나 이유 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 적인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수행목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습목표와는 정적상관을 수행목표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던 이승현(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목표지향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율이 낮은 집단에서 자녀의 수행목표가 유의미 하게 높았다.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가 수행목표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성취가 높은 집단에서는 자녀의 목표지향성 중 수행목표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를 부추기는 경우 자녀가 이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여 평가 받고 있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키웠을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부모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도 상황에 따라 자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신미숙, 2010).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할수록 자녀는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수행목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목표가 높았고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행목표가 높았다. 즉, 자녀에게 일의 동기나 근거의 제시 후 요구하며 약속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이성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는 자녀가 학습목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부모 자녀 간 목표 지향성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자녀의 목표지향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부모의 학습목표는 성취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목표지향성이 학습목표이면서 자녀를 성취적으로 양육한다면 자녀가 학습목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는 자녀가 양

육행동을 통해 지각한 부모의 목표 지향성이 자녀의 목표 지향성과 직접관련을 맺음을 밝힌 Friedel 등(2007)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내적 태도를 반영하는 학습목표는 자녀의 학습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맺기 보다는 외적 태도인 성취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학습목표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이다.

반면, 부모의 수행목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완전히 매개하여 자녀의 수행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수행목표와 자녀의 수행목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의 수행목표와 관련 있는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자녀의 목표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 부모의 정서적 요인(박재현, 2003)과 성취압력(부지영, 2007), 불안의 수준(서신영, 2009), 수행상황에서의 언어반응(임주미, 2011), 태도(구현경, 2009)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종합하건데 본 연구는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목표지향성의 맺는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서 바람직한 부모 양육행동은 부모의 신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은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통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녀는 적응적인 성취 지향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목표지향성은 자녀에게 합리적인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자녀가 이를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양육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내적 변인임을

밝혀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성취상황에서의 자녀의 목표지향성을 측정하거나 부모의 양육행동을 관찰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해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목표지향성을 수행 목표와 학습 목표의 양적 수준에만 근거하여 그 관련성을 탐색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각 목표의 하위 차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을 통해 부모의 태도와 그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현경 (2009).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연 (2009).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 18(2), 313-324.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경 (2008). 자기 구실 만들기: 지능에 대한 신념 및 목표성향, 노력/결과중심 부모 양육태도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99-114.
- 남지연 (2006). 자기 효능감, 목표지향성, 자기 조절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강학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관여 형태가 중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진 (2009). 학생의 성취목표지향, 교사 및 부모의 성취목표지향, 학업성취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도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양육태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현 (2003). 부모의 사회적 배경, 성취압력 및 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지향성 간의 인과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지영 (2007). 부모 및 학생 변인과 초등학생의 목표지향성 간 관계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신영 (2009). 실패 후 성인의 정서반응양식이 아동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미숙 (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0-32.
- 유미영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학습전략과 목표지향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현 (2009).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욱, 박병기 (2007). 성취목표지향성 개념 재분화: 2x2x2 요인구조 모형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21(1), 105-127.
- 임주미 (2011). 성취목표 제시와 증가적 관점의 피드백이 실패 후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귀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정애 (2008).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 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금희 (2010). 어머니의 성취목표지향성, 양육태도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과정지향 유능감의 관계. *목표대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병연 (2001). 목표지향성이 성취관련 신념 노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지*, 28(1), 165-80.
- 최우기 (200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효능감, 학습동기 및 학업 성취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es, C. (1992). Classroom: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84, 261-271.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260-267.
- Barron, K. E., & Harackiewicz, J. M. (2001). Achievement goals and optimal motivation: testing multiple goal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71-388.
- Brookover, W. B., Erickson, E. L., & Joiner, L. M. (1975).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III (Final Re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1831)*. East Lansing,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Bumenfeld, P. C. (1992). Classroom learning and motivation: Clarifying and expanding goal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72-281.
- Dunsmore, J. C., & Karn, M. A. (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117-138.
- Dweck, C. S. (1990). *Self-Theories and goal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in perspectives on motivation*. Lincoln: Nebraska Press.
- Dweck, C. S., & Elliot, E. (1983). Achievement motivation. In P. H. Mussen (Eds.)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V: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643-691). New York: Wiley.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y Review*, 95, 256-273.
- Dweck, C. S., & Licht, B. G. (1984). Determin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The interaction of children's achievement orientation with skill area, *Developmental Psychology*, 20, 628-636.
- Elliot, E. S., & Dweck, C. S. (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 218-232.
- Elliot, A. J., & McGregor, H.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01-519.
- Fincham, F. D., & Cain, K. M. (1986).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6, 301-333.
- Friedel, J. M., Cortina, K. S., Turner, J. C., & Midgley, C. (2007). Achievement goals, efficacy beliefs and coping strategies in mathematics: The roles of perceived parent and teacher goal empha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3), 434-45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 - 268.
- Harter, S. (1981). A new self-report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 Motivational components. *Development Psychology*, 17, 300-312.
- Hokada, A., & Fincham, F. D. (1995). Origins of children's helpless and mastery achievement patterns in the famil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 375-385.
- Kimmel, K., & Volet, S. (2010). Culture in motivation research: A challenging and enriching contribution. In P. Peterson, E. Baker & B. McGaw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6, pp. 576-584). Oxford: Elsevier.
- Pintrich, P. R. (2000). An achievement goal theory perspective on issues in motivation terminology, theory, and resear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92-104.
- Potter, E. F., McCormick, C. B., & Busching, B. A. (1994). *Motivation in the writing classroom: Contributions of goal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 Retelsdorf, J., Butler, R., Streblow, R., & Schiefele, U. (2010). Teachers' goal orientations for teaching: Associations with instructional practices, interest in teaching, and burnout. *Learning and Instruction*, 20(1), 30-46.
- Rubin, H. K., & Chung, O. (2006).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 Schaefer, E. S.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63, 226-235.
- Seijts, G. H., & Latham, G. P. (2012). Knowing when to set learning vs. performance goals. *Organizational Dynamics*, 41, 1-6.
- Thorkildsen, T. A., & Nicholls, J. G. (1988). Fifth grader's achievement orientations and beliefs, individual and classroom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179-201.
- Wentzel, K. (1998). Social relationships and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202-209.
- Wigfield, A., Harold, R. D., Freedman-Doan, C., Eccles, J. S., Yoon, K. S., Arbreton, A. J., &

Blumenfeld, P. C. (1997). Change in children's competence Beliefs and subjective task values across the elementary school years: A 3-year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51-469.

1차원고접수 : 2012. 1. 9

수정원고접수 : 2012. 2. 18

최종게재결정 : 2012. 2. 29

Children's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Goal Orientation and Parenting Behavior of their Parents

Park, Min-Hye

Dept. of Child counsell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eong, Yoonkyu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children's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goal orientation and parenting behavior of their parents. For these ends, 512 pairs of 10 to 11-years-olds and their parents were surveyed using a questionnaire focusing on the goal orientation of both parents and child as well as parenting behavior.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learning goals of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at is, when parents' leaning goals were relatively high, children's learning goals were similarly higher and when parents' performance goals were higher, both their children's learning and performance goals were also similarly higher. Second, parents with high learning goals revealed themselves to be relatively autonomous and high achievers in their child-rearing behaviors, and parents with high performance goals exhibited more controlling and non-achieving child-rearing behavior. Third, the children of parents who exhibite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had similarly high levels in terms of their performance goal and the children of parents exhibiting high achieving parenting behaviors had high levels in terms of performance goal. Lastly, our path analysis confirmed that parents' learning goal is correlated with their children's learning goal and this is mediated by their achieving child-rearing behavior. Our current study provides a basic body of data concerning what beliefs and attitudes parents should hold and exhibit when rearing children so that children may, in turn, develop stronger motivations in regards to their own levels of achievement.

Key words : Parents' goal orientation,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goal orientation, performance goal, Learning goal